

# 무용경연대회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8년 ~ 2011년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 중심으로 -

김운미\*·신경아\*\*

## 목 차

Abstract	IV. 제도적 개선방안
I. 서론	1. 단독 주최 및 운영조직 구성 규제 마련
II. 경연대회 지원정책과 변천과정	2. 전문적 운영 컨설팅 지원
1. 무용경연대회 지원정책	3. 사후관리 체제 및 방안
2. 정책의 변천 - 평가제도 도입	V. 결론
III.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 운영현황	참고문헌

## Abstract

### **A study on the dance competitions provided with awards from government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 An analysis of 2008-2011 operational status

Kim, Un-mi · Hanyang University  
Shin, Kyeong-a ·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discusses dance competitions whose awards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By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se dance competitions, which is regarding their mission, organization, operation, the panel of jury and, follow up service for the prize winners from recent four years 2008- 2011,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 sugges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논문투고일: 2013. 7. 20 심사일: 2013. 8. 20 게재확정일: 2013. 9. 5.

Unde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government provides some of selected dance competitions with awards, grants and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for prize winners in order to encourage country's culture and art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bout the government awar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pports the dance competition by providing with presidential and ministry awards.

In 2007, government has developed a new evaluation system for the performing arts competitions whose award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o enhance the competitions' fairness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With the evaluation system, government reviews the dance competitions' achievements and then makes a decision whether to continue to support awards for the next year. However, as a result of 2008-2011 operational status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dance competitions still cause problems, which are criticiz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dance competition as well as the public for lack of fairness, operational ability, professionalism, and so on.

In consequence, suggestions for the dance competi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Government should create institutional plans designed to improve fairness of the competitions and competitions' operational effectiveness. In detail,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about (1)building a regulation to co-host and co-operation of the competition for large-scaled dance competitions, (2)establishing a professional consulting system, (3)providing post-management service programs for prize winners. Significantly, switching from the current way of 'one-off supports', government should support a whole process of 'Planning - Operation - Assessment - Management' for the dance competitions so that the dance competitions would be able to bring out its development and appropriateness.

**key words:** dance competition, government awards, evaluation system, institutional improvement,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atus

**주요어:**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 현황분석, 공연예술경연대회 평가제도, 개선방안

## I .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무용경연대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적 무용수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무용경연대회의 경우 국제기관 단위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다.<sup>1)</sup> 해마다 세계 무용콩쿠르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가장

---

1) 국제 무용콩쿨로는 '스위스 로잔느콩쿨(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강효정 등을 배출)'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 미국 잭슨국제발레콩쿨, '뉴욕국제발레콩쿨', '바르나 국제발레콩쿨',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등이 있다. 이 국제 무용 콩쿨들은 유네스코 CID 또는 국제극예술협회(ITI IDC)에서 가입된 콩쿨로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정 대회로 규정한 국제 무용 콩쿨이다.

큰 이유로는 개최 취지에서부터 목적 달성까지 명백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이다. 콩쿠르 개최가 단지 우수 무용수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수상자들이 주최기관과 파트너십을 결연한 우수 무용 아카데미와 무용단에서 양질의 훈련을 받고 전문 경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스위스 로잔느 콩쿨과 뉴욕 국제발레콩쿨 거의 대부분 수상자들이 무용 아카데미에서의 수학 후 로열발레단, ABT, 파리오페라 발레단과 같은 세계적 무용단에서 주역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초등학생에서 대학원 졸업생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출전하였던 각종 무용경연대회는 무용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왔다(김운미, 2000:995). 그러나 최근에는 무용경연대회의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급속하게 팽창되었고 경연대회에 대한 참가자의 기대도 높아졌지만 대회개최의 목적성 및 정체성 결여, 심사투명성 결여, 사후관리 미흡 등의 역기능으로 인해 그 교육적 본질적 가치가 상쇄되고 있다. 즉 무용경연대회의 위상과 관련되어 주 참가자인 학생들이 개인의 실력을 평가하고 향상시킨다는 생각보다는 심사의 결정에 승복을 하지 못하겠다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었고 급기야 입상자들조차도 사기와 거취문제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김운미, 2001: 81-105). 이러한 무용경연대회 현황과 운영제도에 대한 문제점 논의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기에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대부분의 무용경연대회 형식은 개최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화된 취지나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기획 및 운영에 있어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다(이미영, 2010:151). 일부 유명 무용경연대회들은 높은 상금과 병역면제혜택을 비롯한 특전으로 참가자들을 모으는 등 본래의 개최취지에서 어긋나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조선희, 2008:125). 또한 대부분의 무용경연대회들은 수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등 수상자들이 재능개발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식집계 된 바는 없으나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무용경연대회의 개수는 대략 100여개이상으로 추정되고 그 중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는 매해 평균적으로 14개 정도 개최되고 있다.<sup>2)</sup> 난립하는 수많은 무용경연대회들 중에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는 정부가 지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대내외적으로 권위와 공신력을 갖게 되고 해가 갈수록 많은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

2) 현재 정부시상 이외의 무용경연대회 개최회수 등에 관한 집계를 다루는 기관은 없으나 매년 실시되는 무용경연대회 정보를 게시하는 “이상댄스” 사이트를([www.esangdance.net](http://www.esangdance.net))를 통해 대략적인 개최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회들의 경우 2007년 평가제도 도입 후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결여, 운영능력 미흡, 전문성 부족 등의 다양한 제반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 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무용경연대회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고 향후 무용인생을 설계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한 수립이 시급한 단계이다. 특히 정부시상지원을 받거나 공적재원이 투입된 무용경연대회는 공인된 정부기관에서 지원했기 그 가시성 때문에 더 큰 문제점들이 가려질 수 있으므로 더욱더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무용경연대회 지원제도와 그 변천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부 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들의 현황을 분석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정체성 확립, 운영능력 제고, 심사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무용경연대회가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최기관이나 참가자의 취지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서 정부 역시 무용경연대회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무용문화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무용경연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정부표창규정’, ‘예술·체육 특기자 공익요원 편입제도’, ‘문화관광부 예규 제 10호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무용경연대회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의 생성배경과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 무용경연대회의 제도적 현황 이해를 도왔다.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 현황은 경연대회 투명성과 운영능력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예술경연대회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예술마루(www.artmaru.or.kr)에 공개되어 있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자료와 대회 주요 정보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업계획에서 부터 성과에 이르기까지 경연대회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는 타 무용경연대회와 운영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현황 분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사안들은 기존 논문이나 학술지에서 선행연구 된 대회 형식 혹은 요강에 대한 조사가 아닌 ‘개최취지 부합여부’, ‘운영 및 심사위원회 구성방법’, 수상자 사후관리’등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정부시상지원 예술공연경연대회 평가보고서를 분석

하여 평가제도 적용으로 인해 개선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무용경연대회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제도 수립 제안의 근거로 삼았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성, 정체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무용경연대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경연대회가 지닌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무용사회가 위기의 맞은 적도 여러 번이지만 무용경연대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물은 많지 않았으며 자율적으로 경연대회 정보를 공유하는 개최기관 또한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정부시상경연대회 운영현황 분석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부시상지원 경연대회 연차별 평가보고서와 예술마루에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 제한적으로 분석되었다.

## II . 경연대회 지원정책과 변천과정

### 1. 무용경연대회 지원정책

“경연대회”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예술경연대회는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우수한 예술가 배출을 통해 문화예술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시작되었고 연이어 1973년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의 설립은 우리나라 춤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예진흥원의 각종 지원제도에 힘입어 무용계 역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한 무용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무용경연대회의 양적팽창을 가져왔다(문지혜, 2011:21).

우리나라 무용경연대회는 민간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현재 예술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언론사 등이 주최가 되어 개최되고 있다. 재정적 운영방식 또한 자율적이며 정부시상지원 예술경연대회 경우 운영을 위한 재정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예술경연대회 운영과 관련된 법과 제도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정부표창규정’, ‘예술·체육 특기자 공익요원 편입제도’, ‘예술경연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들 수 있

다. 이들 법제를 토대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 및 활동을 후원하는데 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의 방식으로는 주로 상장지원, 국고지원, ‘예술·체육 특기자 공익요원 추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상지원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문화예술분야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상장 혹은 부상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명시되어 있는 “제8조 (2)국가는 교육,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우등상을 수여함”에 의거하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장관상 등의 정부 시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와 예술부분의 우수한 기능 보유자에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시상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일이다. 1949년 개춘예술제에서 대통령상 시상과 1958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윤석운의 서울시립극장에서의 공연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이 지원되는 경연대회는 4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문지혜, 2011:49).

병역법 시행령<sup>3)</sup>에 의한 예술·체육 특기자 공익요원 편입제도<sup>3)</sup>는 무용경연대회 참가한 남자 수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로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문화장달과 국위선양에 이바지 한 사람들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자격이 부여된다. 무용경연대회에 있어 최초의 병역면제혜택이 적용된 사례는 1982년 정부가 확정 발표한 예술특기자 병역면제 방침에 따라 1983년 개최된 동아무용콩쿨로, 수상자들 중에서 전체 대상 수상자와 3개 부문별 금상 수상자들에 한하여 병역면제 심사대상의 자격이 주어진 일이다.(1982.6.9.:동아일보) 이후 2008년도에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아무용콩쿠르’, ‘서울무용제’,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에서 외국무용부문 금상 이상 수상자에 주어지던 병역특례를 모두 폐지하고, 유네스코와 국제극예술협회에 가입된 국제대회들로 대상 대회를 바꿨다. 2012년 기준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무용경연대회는 국제대회 16개와 국내대회 3개로 총 19개이며<sup>3)</sup>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자,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자격이 부여된다(진성준, 2012).

정부에서는 예술경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장려 위해 다양한 법제를 통해서 지원해왔으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벗어나는 비리 혹은 특혜남용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 마다 부분적으로 개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상장지원이

3) 병역 특례 대회 인정 조건으로는 유네스코와 국제극예술협회(ITI IDC) 공인된 콩쿠르이거나 역사가 5회를 넘으면서 참가국이 9개국 이상인 콩쿠르이며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인정된다.

나 병역면제혜택과 같은 지원 방법은 일회적 성격이 강한 일차적인 ‘지원’에만 치우치고 있으며, 이 지원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수상자 사후관리나 대책 수립은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장이나 병역면제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와 역효과에 따른 실천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 2. 정책의 변천 - 평가제도 도입

2007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sup>4)</sup>을 문광부 예규 제 10호로 제정,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같은 년도에 개최된 한국미술협회 주최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금품 비리 사건이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sup>5)</sup> 사실 예술경연대회의 비리는 장르를 불문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고위관직 상장이나 병역면제가 주어지는 경연대회가 비리에 연루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한층 더 심각해진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연대회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장지원 체계의 정비,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평가제도의 실시 등 개선안이 포함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지원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전까지 정부의 예술경연대회 지원 정책으로는 병역 면제 및 시상지원과 같은 혜택이나 지원금 제공에 한하였으나 미술대전 비리 사건을 계기로 예술경연대회 감독과 운영관리에 관한 제도가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예술경연대회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경연대회 운영 규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대회와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심재철, 2007:14-17). 문화체육관광부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정부시상 지원결정 후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평가계획을 수립 후 실시한다. 평가 방식은 효과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평가 및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진행되며 평가 후 도출되어지는 결과보고서는 차기해 시상지원 심사를 위해 검토, 반영된다. 이와 더불어 예술경연대회 전용 사이트“예술

4) 1장 총칙, 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3장 경연대회 운영 및 관리, 4장 경연대회 평가 관련 사항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5) 2007년 미술협회 주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수상작 선정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면서 정부는 미술협회 지원을 즉각 중단했다. 미술협회 내부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제자나 후배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작품을 입상시킴으로써 금품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에 까지 이른 사건이다.

마루”를 구축하여 예술경연대회 운영자나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예술경연대회가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한 성과적 측면은 일반 공개를 통해 경연대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술경연대회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으로 매해 예술 장르별 상장지원 현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용을 비롯한 음악, 연극, 미술 등 각종 예술경연대회의 지역, 예산, 참가자, 시상비, 참가비, 연령 등의 통계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경연대회의 전반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상장지원을 받은 해당 무용경연대회 주최기관들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회 운영에 관한 자체적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을 위한 단·장기적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III.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 운영현황

년도 별 현황 통계 자료 분석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3개의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가 개최되었고, 지원된 상장 수는 대통령상 8매, 장관상 57매로 총 65매로 집계된다. 무용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의 ‘예산규모와 참가자 수의 증가 추세는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가 타 무용경연대회에 비해 권위와 공신력이 높고 따라서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상금이 165,596,000원에서 319,700,000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수상금 혜택이 주어져 보다 많은 참가자들의 모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수상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대회 개최 수는 거의 고정적인데 반해 심사위원의 수가 2010년도 들어서부터 증가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심사운영에 있어 공정성이 제고되고 있는 등 점점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1. 무용경연대회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대회수	10	14	14	13
상장수	14	17	18	14
심사위원수	64 (평균 6.4)	124 (평균 9.5)	161 (평균 11.5)	225 (평균 17.3)
예산	1,017,955,753	2,314,746,365	2,079,852,000	2,223,947,000
시상금	165,596	185,110,000	187,780,000	319,700,000
참가자수	1,084	2,379	2,107	2,908

(예술마루 자료)

2007년 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한 환류체계의 강화로 일정한 평가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대회들은 차기년도 시상지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각 개최기관들은 시상지원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시상지원을 받고 있는 경연대회로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대한민국무용대상’, ‘부산무용콩쿠르’, ‘서울발레콩쿠르’, ‘전국 초중고등학생무용경연대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선사무용경연대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이다.

4년 동안 총 18개의 각기 다른 무용경연대회들이 정부시상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공동 주최기관까지 포함하여 총 23개의 주최기관에 의해 개최되었다. 주최기관들 중 가장 많은 정부시상지원을 받는 기관은 (사)한국무용협회이며 ‘대한민국무용대상’, ‘전국무용제’,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등으로 정부 시상지원을 받았다. 대회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주최기관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았으며 그 외 개최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혹은 언론사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 18개 무용경연대회 중 기업의 후원을 받는 곳은 ‘서울발레콩쿨’ 단 한곳으로 이는 무용경연대회의 원만한 재정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로 제시될 문제이다.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들의 개최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경연대회들이 우수 무용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용경연대회의 규모나 수준이 국제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계적 인재 발굴인지 국내 인재 발굴인지만의 차이를 보일 뿐 대회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경연Competition’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 2. 무용경연대회별 시상지원 및 후원 현황

연속지원 횟수	대회명	주최기관	후원
4년	서울국제 무용콩쿠르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	문화체육관광부 CID-UNESCO ITI-UNESCO, ITI-IDC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 무용대상	(사)한국무용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 무용콩쿠르	부산광역시 KBS부산총국	-
	서울발레콩쿨	(사)한국발레협회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선사 무용대회	사단법인 청록예술문화원	강동구청
	전국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통영지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교육청, 통영시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국대학 무용경연대회	충북무용협회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무용협회, 충북예총, 충북지역개발회
	전국수리 무용콩쿠르	군포시 (사)한국무용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군포예총
3년	희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한국무용협회 국회의원의정부,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정부시의회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예총
	차세대전국 무용경연대회	보훈전국무용경연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전주보훈지청
	전국전주 풍남춤페스티벌	(사)한국무용협회 전북지회 (사)금과춤 보존회	KBS전주방송총국, MBC전주문화방송국 JTV전주방송 전북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2년	코리아국제현대무용 콩쿠르	(사)한국무용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UNESCO
	전국무용제	(사)한국무용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연속지원 횟수	대회명	주최기관	후원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전국무용국악예술제	사단법인 무궁화예술단	문화관광부
	청주전국 무용경연대회	(사)청주예총	청주시 충청북도청주교육청
1년	한국현대무용콩쿠르	한국현대무용 콩쿠르위원회	-
	개천예술제개천 무용경연대회	진주시 한국예총진주시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전국신인 무용경연대회	(사)한국무용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마루 자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정부시상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제고해온 8개의 무용경연대회들 중 6개 대회의 개최 목적이 그러하였다. 한편 지역성을 부각시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취지로 기획된 무용경연대회들도 있는데, ‘전국 선사무용경연대회’의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전국의 무용인들에게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고장의 지역 예술진흥 발전이란 목적을 위해 개최되었다. ‘전국 전주풍남 춤 페스티벌’은 “풍남”의 이미지에 “춤”을 매개로 한 다양한 장르가 담겨 있는 전북의 상징적 문화행사로써 자리매김하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마당이란 취지를 앞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연대회 심사기준으로 한국무용이든 외국무용이든 장르 상관없이 풍남 춤의 맥을 상징하는 춤을 테마로 잘 발현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였다. 무용경연대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사실은 매해 개최되는 수많은 무용경연대회들에 중에서 차별화된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평가제도 도입 후 정부는 주최기관이 심사위원 선정방식, 심사기준, 심사절차, 수상자 결정방법 등 모든 심사에 관련된 진행과정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대신 이를 공개하여 경연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도모한다.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기준 항목으로는 심사위원 2년 연속 연임 여부, 심사위원 비율, 해당분야 전문가비율, 심사위원 지역 안배 비율로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주최기관들의 경연 심사 및 대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도하고 있다. 심사운영 방식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전년도 심사위원, 집행위원회 및 예술 감독의 추천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해

외 유명 콩쿠르에 참석하여 직접 섭외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심사배점에 있어서는 클래식, 컨템포러리무용, 민족무용, 창작무용 등 부문별로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 예술성, 기술성, 작품성, 표현성, 전통성에 각각 비율을 배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한국현대무용콩쿠르’의 경우 심사위원은 국내 권위 있는 현대 무용가들로 선정하는데 3배수 추천 후 대회 조직위원회를 거쳐 위촉하고 심사 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들의 심사규정은 해가 거듭날수록 구체화되고 평가제도에 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무용대상’의 경우 2008년에는 심사위원 결정방법 및 절차가 무용대상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었으나 2011년 들어서는 중앙심사위원 5명 지역심사위원 2명으로 각각 구성해서 지역 안배율을 높이고 자격요건으로는 무용계에서 지명도가 높고 다년간 무용(평론) 활동을 한 인사, 심사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인사, 가능한 지역예선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사, 개최지에서 진행되는 공연심사 참여에 시간적 제약이 없는 인사 구성으로 규정을 세부화 하였다. 이는 무용경연대회의 주최기관이 대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구성방식과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고 객관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표 3. 시상지원 대회 심사 및 운영 방식

2011.

구분	결정방법 및 절차	절차	수상자결정방식
서울 국제 무용 콩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집행위원회 및 예술 감독의 추천</li> <li>• 해외 유명 콩쿠르 참석을 통한 직접적인 초청</li> <li>•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쿠르 사무국은 심사표를 취합하여, 본선에서는 참가자 1인당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산출한 심사표의 점수를 바탕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수상자를 선정(공동수상 인정안함)</li> </ul>
한국 현대 무용 콩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은 국내 권위 있는 현대 무용가들로 선정</li> <li>• 심사위원은 3배수 추천 후 대회 조직위원회를 거쳐 위촉</li> <li>• 심사 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선출하여 진행</li> <li>• 외부심사위원은 조직위원장이 위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문 심사종료 후 심사위원 확인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평균 중 가장 높은 순위대로 수상자를 결정</li> <li>•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총점으로 순위를 결정</li> </ul>

구분	결정방법 및 절차	절차	수상자결정방식
대한민국 무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심사위원 : 주최측 한국 무용협회에 추천의뢰(5인)</li> <li>• 지역심사위원 : 주관처 추천 (2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부문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li> <li>• 지역부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부문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이 수상단체명 기재 및 선정</li> <li>• 지역부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li> </ul>
전국신인 무용경연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이사장단 및 참가자와 관계없는 분을 추천 받아 심사위원으로 선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선은 O, X로 하며 심사위원의 2/3이상 O표를 받은 자를 본선 진출</li> <li>• 분야별 심사 시 동점 처리는 심사위원장에게 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표는 공개를 원칙으로 대상 수상자 선정은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한 후 최종 토론으로 결정</li> </ul>
코리아 국제 현대 무용 콩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해외 6인 국내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참가자선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선, 준결선, • 결선으로 나누어 심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선: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부터 순위결정</li> <li>• 결선: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하여 높은 점수가 대상</li> <li>•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 회의 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결정</li> </ul>

(예술마루 자료)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의 주최기관들은 수상자들을 위해 상장수여뿐만 아니라 무용수들이 수상을 계기로 하여금 예술적 성장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사후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원 형태나 규모에 있어서는 주최 기관 및 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나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무용경연대회는 대부분 공연기회 제공, 장학금 수여, 우수 무용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발레나 현대무용이 중심인 국제대회 수준의 무용경연들은 세계 무용단체에서의 해외연수 기회 제공하고 있다. ‘서울발레콩쿨’은 미국 워싱턴 유니버설 발레단에서의 연수 기회 제공과 더불어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무용경연대회들은 수상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다른 무용경연대회 예선 통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후관리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수상자들에게 상장 수여만 할 뿐 사후관리 혜택이 전혀 없는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들도 상당 수 차지했다. ‘부산무용콩쿨’, ‘전국수리무용콩쿠르’, ‘전국초중고등학교무용경연대회’ 등등 운영예산 부족으로 사후 지원 혜택이 없었으며 다만 이들 경연대회는 공연기회제공

및 장학금 수여 등에 관한 향후 계획만 수립하고 있었다. 정부시상지원 음악경연대회들의 과반수 이상이 수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행하고 있는데 비해 무용경연대회들은 사후관리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이전까지만 해도 무용경연대회들 중에서는 수상자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가 평가제 도입 후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리계획이나 수립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는 평가제 도입으로 인해 도출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표 4. 사후 지원현황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수상자 중 일부에 한하여 영국국립발레학), 임펠스탄츠 등 세계 수의 무용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 기회 제공무용 - 발레 시니어 남자부문 중 국내 참가자가 1,2등에 수상할 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추천
전국신인 무용경연대회	- 입상자 전원에게는 본회 회원자격을 본인 신청 시 부여 - 젊은안무자창작공연에 안무자로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 - 현대무용부문 수상자는 (후년)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1라운드 예선을 면제하고 Semi final로 진출. - 발레부문 수상자는 (후년)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1라운드 예선을 면제하고 Semi final로 진출.
대한민국무용대상	- 대통령상 상장,상패 및 창작활성화 지원금 (2천만 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장,상패 및 창작활성화 지원금(1천만원)
서울발레콩쿨	-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발레협회와 유니버설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워싱턴 유니버설 아카데미로 단기 연수(항공료, 연수비, 숙식 지원)의 기회가 제공
전국대학생 무용경연대회	- 수상자는 청풍명월예술제 기간 중 귀향무대에 우수수상자로 초청되어 공연 기회를 제공함.
기타 (‘부산무용콩쿨’, ‘전국수리무용콩쿠르’, ‘전국초중고등학교무용경연대회’ 등등)	- 사후관리 계획은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미진행 혹은 해당사항 없음

(2008년, 2009년 정부시상지원 공연예술경연대회 평가보고서 참조)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 주최 기관들은 각자 설계한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대회

6) 예술마루 웹사이트에 공개된 2011년 경연대회 모집요강과 2008년, 2009년 예술경연대회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2011년 개최된 총 16개의 정부시상지원 음악경연대회 중 8개가 수상자 사후관리를 실행하고 있는데 반해 무용경연대회는 총 13개 중 5개 대회에 불과했다. 또한 음악경연대회 사후관리의 실천방안은 우수단체와 협연기회 혹은 초청공연 기회 제공, 아카데미 연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수상자에 한해 장학금 수여,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 공연기회 제공(호남예술제) 등으로 무용경연대회에 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연대회 개최 전부터 운영조직위원을 구성하여 운영규정을 구체화하고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예비 참가자들을 위해 일정계획, 심사기준과 수상내용 등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술경연대회 평가제는 경연대회들의 운영적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제고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실제로 평가제 도입 후 무용경연대회들의 심사절차나 사후관리 방안, 운영체계 등에 관련해 평가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부합되는 현상을 보인다.

## IV. 제도적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무용경연대회의 개최여부나 운영을 단체나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맡김으로써 무용경연대회의 부흥을 가져오긴 하였으나, 현재 우후죽순 범람하는 무용경연대회들의 질적 수준과 대회 개최의 당위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들은 2007년 평가제 도입 후, 운영능력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에 맞추어 자구노력을 하는 편이나 이 또한 형식적인 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로 인해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들이 개선에 있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지 반드시 검증해 보아야 할 일이다. 따라서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 개선방안에 있어 추구하는 방향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최기관의 구조조정,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객관화, 배출한 무용수들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축적 등 제반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주최기관들은 무용경연대회 운영에 있어 각자 고유의 취지와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무용경연대회 주최기관들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1. 단독 주최 및 운영조직 구성 규제 마련

무용경연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는 것은 주최기관의 조직구성과 심사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술경연대회에서 공정성에 관한 부분은 비단 무용경연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경연대회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적재원을 후원받거나 상

장을 지원받은 무용경연대회들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공신력과 파급효과를 지니므로 정부는 지원 선정에서부터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방식에 관한 기준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확립해야한다. 공적재원의 지원으로 인해 주최기관은 정부가 공인한 무용경연대회라는 인식을 확립시킬 수 있고 수상자는 우수 무용단 입단 혹은 대학 입시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남성무용수의 경우 병역면제까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단순히 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지원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며 또한 비리, 부정 등의 역기능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앞서 현황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거의 모든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들은 단독 주최로 개최되고 있으며 주최기관은 관련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경연대회를 운영하고 다시 이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과 심사과정에 있어 다양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심사절차가 규정화되어 있긴 하나 관련 인맥들로 형성된 심사위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하므로 충분히 비리가 발생 될 수 있는 구조라 볼 수 있다. 무용협회는 매 해 여러 개의 무용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4년간 협회가 주최한 총 4개의 무용경연대회에 대해서 정부상장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기관에서 대동소이한 여러 개의 무용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이들 대회 모두 임의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심사권한과 결정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예술적 관점과 견해를 가진 심사위원들에 의해 수상자가 결정되거나 또는 기관이 원하는 무용수를 입상시킬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차단하고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의 공정성 확보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상장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기관 선정 시 무용경연대회 운영조직의 구조 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과 참가자 예상인원을 파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무용경연대회의 경우 현재와 같이 한 개의 기관 및 단체에서 폐쇄적으로 무용경연대회를 단독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고 2개 이상의 단체나 조직이 개입되어 공동 기획, 공동 운영위를 구성해야 한다. 공동운영위의 지휘 아래 심사위 구성 시 예·본선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고 내부추천에 의해서가 아닌 외부 인사들의 비율을 대폭 늘리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로써 정부시상지원 무용공연에서 만큼은 특정기관의 예술적 성향이나 기조에 의해서 혹은 인맥에 의해서 수상자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적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전문적 운영 컨설팅 지원

정부의 평가제 도입 취지는 평가와 교육을 통해 주최 기관의 대회 운영능력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연대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절차가 이러한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평가제에 의한 무용경연대회 평가 방법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경연대회 평가위에 의해서 서면평가와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로 이루어진다. 평가위에서는 구성된 여러 평가 항목들에 점수를 부여한 후 총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상위 2개 등급은 시상을 유지하고 하위등급은 고려 및 지원폐지 대상이다. 이는 평가결과에 의해 도출되는 점수가 높으면 주최기관의 운영능력에 신뢰할 수 있고 시상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형식적 평가 상의 충족이 실제 경연대회 수준을 반영하는 지 평가위에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사안이다.

주최기관들은 평가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단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위한 형식적 노력이 아닌 자신들이 주최하는 무용경연대회만의 고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적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용경연대회마다 고유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를 획일적 평가에 의해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심재철, 2007:31-3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상 대부분의 주최기관들이 경연대회를 치르는데 압박해 운영에 있어 미숙함을 드러내는 실정이고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 주최기관들이 이러한 목표 성취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운영 컨설팅을 가동하여 각각의 주최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야한다. 정부는 평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경연대회 관련 전문인들로 구성된 무용경연대회 컨설팅 지원으로 평가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최기관과 함께 논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을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무용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으로는 투명성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조직구성 방법, 심사위 구성방법 및 절차, 외부 심사위원 추천, 홍보 방법, 후원획득 방안, 수상자 사후관리 방안, 참가자들 위한 서비스 방안, 차별적 정체성을 위한 방안 등이 주로 다루어주어야 하며 주최기관이 단·장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적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회적인 ‘지원’ 수준에 머물면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원’을 통해 정

부가 의도했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그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문적 운영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식은 무용경연대회 주최기관이 운영능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3. 사후관리 체제 및 방안

무용경연대회 주최 기관들이 정부상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대회의 권위를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지만 경연대회 개최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배우의 기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예술적으로 더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우수 무용수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정부 역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까지 예술경연대회를 지원하는 이유는 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하고 결국엔 이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무용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참가 목적은 ‘입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연의 과정을 통해 기량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기 위해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이다.(정혜정, 2011:9) 이러한 정부, 주최기관, 참가자 모두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용경연대회의 수상자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확립시키고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은 필수이다. 사실 정부가 예술경연대회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무용경연대회가 이들 수상자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향후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무용경연대회 주최기관은 수상자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공연기회, 해외연수, 장학금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현황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국제’ 타이틀을 내건 무용경연대회를 제외하고는 수상자 관리제도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무용경연대회가 드물었다. 사후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최기관들은 공연 기회 제공 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상자들이 무대경험을 한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일회성 지원이자 효과라 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사후관리 방법이 유사하기는 하나 좀 더 체계적이고 수상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 1973년에 설립된 로잔느 콩쿠르(Prix de Lausanne)는 우수 무용단에서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 제공으로 수상자들이 세계적인 무용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열어주는 것을 처음부터 중요한 미션으로 내걸고 있다. 로잔느콩쿨의 경우 다양한 장학혜택이 있으며 해외 단체에서 연수 시 숙박비와 항공료가 지원된다. 또한 파트너십을 결연한 발레스쿨들 중 수상자가 선택한 해당 학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수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단체에 입단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뉴욕국제발레콩쿨과 잭슨발레콩쿨 역시 콩쿨 참가를 계기로 수상자들이 전문적인 무용수가 되기 위한 ‘커리어 발전’을 콩쿨 개최의 목적으로 둔다. 이들 콩쿨은 미국 내 우수발레단에서의 1년 계약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상자들이 무용경연대회 참가 이후 전문 무용수가 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주최기관들이 수상자 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예산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용경연대회 주최기관을 위해 단순 상장지원이나 후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방식과 지원금 사용 방식에 있어 수상자들이 재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상자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연수 및 국내 우수 무용단 연수,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무용경연대회 지원금 중 일부를 수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수상자들이 무용경연대회 참여를 계기로 우수한 무용수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의 현황과 무용경연대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과 제도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무용경연대회가 오늘날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마련된 다양한 정책들과 2007년에 도입된 평가제도로 인해 변화를 맞이한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4년간의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 현황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의 제도적 개선의 목표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운영능력 향상, 무용인재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회성 지원’과 ‘평가’ 수준의 지원방식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적재원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기획-운영-평가-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신 주최기관에서 진행하는 무용경연대회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도와주는 조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체제가 실행된다면 무용경연대회들의 질적 수준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최기관이 무용경연대회 개최

목적 및 목표를 성취를 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개선의 기본 목적과 목표를 토대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시상의 공정성을 확보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무용경연대회의 경우 지금과 같이 한 개의 기관 및 단체에서 폐쇄적으로 무용경연대회를 단독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고 2개 이상의 단체나 조직이 개입되어 공동 기획, 공동 운영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조직의 구조적 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용경연대회가 관련인맥으로만 형성된 폐쇄적 운영을 탈피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는 무용경연대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무용경연대회 전문적 운영 컨설팅을 가동하여 평가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뿐만 아니라 주최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을 설계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무용경연대회 주최기관은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과 자신들의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컨설팅을 통해 운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원의 방식에 있어 단순 상장지원이나 후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동할 수 있는 무용경연대회 예산편성 있어 수상자들이 재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는 다른 무용경연대회들에 비해 높은 권위와 공신력을 지니고 있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최기관이나 참가자 모두에게 있어 대회 개최의 결과에 따른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지원을 결정한 이상 무용경연대회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지원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세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시상지원 무용경연대회는 현재 난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무용경연대회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모범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제도 개선에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윤미(2000), “1960년대 한국무용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제 39권**, 9.
- \_\_\_\_\_ (2001), “1970년대 한국무용교육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접근”,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6호**, 98.
- 문지혜(2011), “대한민국 정부시상 무용경연대회 현황연구 2008년~2010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심재철(2007), “기초예술 [음악·미술·무용] 심사제도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정책토론회 보고서**, 14-17.
- 이미영(2010), “무용콩쿠르의 개선방안”,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지**, 제63권, 151.
- 이태상(2004), “동아무용콩쿠르가 한국무용계에 미친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진성준(2010),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병역면제’가 아닌 ‘공익근무’”,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조선희(2008), “국내 무용콩쿠르의 유형별 현황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혜정(2011), “무용교육 개선을 위한 대학 주최 무용콩쿠르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 정부시상지원 공연예술경연대회 평가보고서”.
- \_\_\_\_\_ (2009), “2009 정부시상지원 공연예술경연대회 평가보고서”.

### 신문자료

- 이용우(1982,6,7), “예술진흥의 밑거름 예술특기자 병역면제 혜택의 의미”, 동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2007), “예술경연대회 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

### 참고 사이트

- 정부시상지원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 시스템 (<http://www.artmaru.or.kr>)
- 로잔느콩쿨 웹사이트 (<http://www.prix.de.lausanne>)
- 뉴욕국제발레콩쿨 웹사이트 (<http://www.nyibc.org>.)
- 미국재슨발레콩쿨 웹사이트 (<http://www.usaibc.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정부표창규정, 병역법 (<http://law.go.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이상무용댄스 (<http://esangdance.net>)